

황성규 제2차관, “공항산업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 필요” 2일 관계기관 간담회 통해 현장 의견수렴·지원노력 당부

-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일(화) 공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,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.
 -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.
 - 특히, 공항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재학생(항공대, 한서대)도 참석하여 공항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.
- 황 차관은 “최근 국내 공항개발 사업과 해외수주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, 이를 수행해 나갈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”이라고 평가하며,
 - “공항공사 교육원, 대학 등에서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화 하고,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- 이어, 황 차관은 “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인력 양성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”이라면서,
 - “특히, 공항 분야별 인력수요와 공급 현황을 진단하고, 교육부터 취업까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 - 또한, “미래 공항산업을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”을 거듭 당부하고, 정부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

2021. 11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